

수업 단원		수수께끼로 즐기는 제주어		차시	6~7/17차시	
일시 및 대상학급		고등학교 전학년	수준별	공통	장 소	각 학교별 활동 교실
수업목표		■ 제주 수수께끼를 통해 제주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. ■ 제주 수수께끼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제주조상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다.				
지도상의 유의점		■ 게임 형식을 취하고 교사는 단계적으로 도움을 주어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. ■ 학생의 답이 모범답안과 다르더라도 수수께끼를 바르게 이해하고 어울리는 답이면 맞는 것으로 인정한다.				
수업 단계	전개 과정	학습 요소	교수학습 활동		시 간	학습자료 및 유의점
도입	도입	전시 학습 확인 수업안내 학습 목표	■ 전시 학습 확인 ■ 수업 안내 ■ 학습 목표 제시		7분	PPT
전개	전개	교사의 시범 학습활동	■ 교사가 수수께끼 하나를 택하여 함께 듣고, 문장을 읽고 해석한 후 답을 말함 ■ 학습활동: 제주어 수수께끼 알아맞추기 -. 수수께끼를 듣기 -. 교사는 문장 제시, 현대어 풀이 등 도움을 주고 상황판에 모둠별 표시를 한다.		36분	PPT
정리	형성평가 정리	형성평가 차시예고 과제 부여	■ 형성평가 ■ 차시예고 ■ 과제 부여		7분	PPT

학습활동 1. 다음 수수께끼 문제를 현대어로 풀이하고 그 답을 맞춰보자.

- ① 가죽주머니에 터럭몽둥이 내 흔드는 건 뭇고? (?)
- ② 가진 가지라도 먹지 못 허는 가진 뭇고? (낭가지-나뭇가지)
- ③ 갈 땀 빈 체 가곡 올 땀 혼짐씩 지영 오는 건 뭇고? (불당그래-‘굴뚝’에 불을 땀 때 땀감을 안으로 밀어넣는 데 사용하던 고무래)
- ④ 감은 감이라도 먹지 못 허는 감은 뭇고? (감산이-지명, 영감)
- ⑤ 갠 개라도 놀아 땡기는 갠 뭇고? (비영개-비행기)
- ⑥ 갠 개라도 죽구지 못 허는 갠 뭇고? (식개-제사)
- ⑦ 거울 아니라도 얼굴 비추는 건 뭇고? (물)
- ⑧ 걸치면 오몽 허곡 벗으민 줌만 자는 건 뭇고? (입성-옷/옷차림)
- ⑨ 검은 몸에 흰 콩지 돈 건 뭇고? (바농-바늘)
- ⑩ 검은 암투이 하루 세 번 새기 낳는 건 뭇고? (숯디 밥 허는 거- 술에 밥짓기)
- ⑪ 검은 집안에 눈소래기가 오망삭삭 현 건 뭇고? (곤밥 허는 거- 쌀밥 짓기)
- ⑫ 고양이 어신디 물 담아진 건 뭇고? (독새기-달걀)

- ⑬ ㄱ루함박에 붉은 꽃 피는 건 뭇고? (부삽)
- ⑭ ㄱ만이 시어도 밭디 강 일 허는 건 뭇 고? (꿈 보는 거-꿈꾸기)
- ⑮ ㄱ만이 시민 컷대기 착착 내굴기는 건 뭇고? (불괭 - 성냥)
- ⑯ 고망 일곱난 뒤웅박새긴 뭇고? (사름 대강이-사람 머리)
- ⑰ 고사리 일산 받은 건 뭇고? (산)
- ⑱ 고장 쏘곶에 불 아진 건 뭇고? (호박꽃)
- ㉑ 고제 어신 노랜 뭇고? (똥 꺾는 거-방귀 뺀 거)
- ㉒ 곡석 좇어 먹당 흰 똥 골기멍 하늘 웃테레 올라 가는 건 뭇고? (바농질 허는 거)
- ㉓ 구름은 밋밋 뻤은 독독 허는 건 뭇고? (맨내 보르는 거-목화 타는 일: 목화를 씨아로 틀어서 씨를 빼내고 활줄로 튀기어 퍼지게 하는 일. “뻤은 독독”은 목화의 씨가 똑똑 떨어지는 모양을 이르는 표현임.)
- ㉔ 굴은 굴이라도 들어가지 못 허는 굴은 뭇고? (바당에 먹는 굴)
- ㉕ 켜 켜라도 옷 놓지 못허는 건 뭇고? (괴-굴)
- ㉖ 켜 귀라도 걸어댕기는 켜 뭇고? (당나귀)
- ㉗ 금은 금이라도 빛 안 나는 금은 뭇고? (능금, 우금- 밥주걱)
- ㉘ 기차 갈수록 크는 건 뭇고? (고냥-구멍)
- ㉙ 까먹어도 혼 구덕 안 까먹어도 혼 구덕 헌건 뭇고? (구쟁기-소라)
- ㉚ 꼭 어멍 가난 고냥으로 새끼도 가는 건 뭇고? (바농질 허는 거)
- ㉛ 꼴랭이 흐나에 대가리 들인 건 뭇고? (콩주름)
- ㉜ 나갈 때마다 몸 곱양 들어오는 건 뭇고? (사발 그릇)
- ㉝ 나그넨 들어가곡 주인은 나가는 건 뭇고? (통쇠 - 자물쇠)
- ㉞ 나명 씨라 어멍 컷대기 착 부찌는 건 뭇고? (불괭)
- ㉟ 남드리알 네발 공상은 뭇고? (도새기 - 돼지)
- ㊱ 낭간 알로 흰 강생이 나오랏닥 게들엇닥 허는 건 뭇고? (코)
- ㊲ 낭은 낭이라도 올라가지 못허는 낭은 뭇고? (보리낭 - 보릿짚)
- ㊳ 낭은 낭이라도 죽은 낭은 뭇고? (정낭 - 대문 대신 정주목에 걸치는 나무 막대기)